

전남 초등교사 채용 초유의 미달 사태

493명 모집에 423명 지원...경쟁률 0.86대 1

농어촌·장애 분야 기피...임용 늘어난 수도권 몰려

‘선망의 대상’인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 시험에서 지원자가 선발 인원에 못 미치는 초유의 ‘미달’ 사태가 전남에서 벌어졌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난데다, 예비 인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선발 인원을 늘려잡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농·어촌 근무 기피 현상 등을 엿볼 수 있어 우울한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공립 초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마감한 결과, 493명을 뽑는 초등 일반교사 임용 시험에

423명만 지원해 0.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미달’됐다고 18일 밝혔다.

초등 일반교사 임용 시험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못 미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없었다는 게 전남도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이뤄진 ‘2015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588명을 뽑는 초등 일반교사 임용시험에 612명이 지원했지만 필기 시험 과정에서 89명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

이 뿐 아니다. 장애 분야와 섬·오지 등 지역 제한 교사로 전년도와 같은 ‘미달’ 사태를 빚었다.

33명을 뽑는 장애인 교사와 9명을 선발하는 시·군 II는 한 명도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도서 II는 0.50대 1, 시·군 I은 0.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치원 일반 교사(6.99대 1), 특수유치원 교사(3.88대 1), 특수초등교사(9.33대 1)의 경쟁률과도 대조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예비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린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남에서 재직 중 타 지역 임용시험을 봐 빠져나가는 교사들이 매년 140명 가까이 이르는데다, 100명에 육박하는 육아·병역휴직자와 예비 기간제 교사 확충 등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290명)보다 선발 인원을 70% 늘려잡았다는 것이다.

서울·경기도 교육청의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원

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의 경우 전년도(564명)보다 300명 넘게 늘어난 902명의 초등 일반교사를 선발하면서 2045명의 응시자가 몰렸다.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고 채용 인원도 많은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인 전남을 비롯, 충북, 강원교육청이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러나 “예비 수요를 고려해 선발 인원을 늘린 만큼 초등 교원 수급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1일 목포 육암초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전남공고에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실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가능

자녀를 훌륭히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조차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모의 이름·주민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했다.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연합뉴스



농한기 ‘하우스 극장’ 열렸네 지난 17일 영암군 군서면 도갈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주민들이 송광호·유아인 주연의 영화 ‘사도’를 감상하고 있다. 전남문화재단은 농한기를 맞아 문화기반 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통원서 한번만 쓰면 여러대학 지원

교육부, 다음달 24일부터 적용

대입 수험생은 올해 정시모집부터 공통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로 원서를 작성해야 했던 수험생의 불편을 덜고자 이같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도입해 2016학년도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다음달 24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대행사 2곳의 시스템을 연계해 대행사 한 곳에만 통합하면

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334개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전주교대, 포항공과대 등 8개 대학은 제외된다.

수험생들은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뒤 표준 공통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통원서를 넣고자 이같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도입해 2016학년도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다음달 24일부터 적용한다. 18일 밝혔다.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대행사 2곳의 시스템을 연계해 대행사 한 곳에만 통합하면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서 상습 체벌 교사 경찰 신고

고교생 4명에 뺨 때리고 폭언

담양의 한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8일 담양경찰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담양 모 고등학교 음악교사 A씨가 학생 4명을 체벌했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 1학년 4명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A씨는 지난 5월 음악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B(16)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단소를 잘 불지 못한다며 C(16)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패명이 들고,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남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0 해질 17:25
달출몰 12:57 달지름 --:--

우중충한 하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12/15, 보성: 흐림 8/14, 목포: 흐림 11/15, 순천: 흐림 10/16, 여수: 흐림 11/15, 영광: 흐림 10/15, 나주: 흐림 9/15, 진도: 흐림 12/15, 완도: 흐림 12/15, 진주: 흐림 10/14, 구례: 흐림 9/15, 군산: 흐림 9/14, 강진: 흐림 11/15, 남원: 흐림 8/14, 해남: 흐림 11/15, 옥산도: 흐림 12/14, 장성: 흐림 9/15

◇바다 날씨
오전 풍향 파고(m)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밀물 07:02, 썰물 00:06, 19:44, 12:13
여수: 밀물 01:49, 썰물 07:43, 14:35, 21:13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11/16 7/16 10/18 12/15 10/14 5/10 4/7

檢, 전남경찰청 총경 ‘뇌물 수수혐의’ 체포

전남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범인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남경찰청 A총경을 청사 내 집무실에서 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에 앞서 A총경의 자택과 청사 내 집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삿짐 박스 1개 분량의 서류도 확보했다.

A총경은 비철 수출업자인 전직 경찰관 B씨로부터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0년경 경찰에서 퇴직한 B씨를 200억 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A총경 측 계좌로 3억원 가량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건넌받은 돈은 투자금이고 나는 죄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본청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남영전구 수은중독 근로자 4명 산재 인정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살비 철거 작업을 하다가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17일 오후 남영전구 산재신청자 중 우선 심사자 6명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김모(60)씨 등 4명의 산재처리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모(40)씨 등 2명은 혈액과 소변 검사 등 재검사를 진행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고, 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받은 뒤 판정위를 열기로

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철거 근로자들의 수은 중독과 연관성 등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 등 4명의 근로자가 산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0일 사이 공장 살비 철거작업에 참여했다.

광산지사 관계자는 “김씨 등 산재가 인정된 4명에게는 4월부터 질병치료에 사용할 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ki@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에스골프 **에스투어**

10월 임의고객 이벤트 진행중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통형 상품안내 (100만원 한정)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문의전화 062-415-8811

지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